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커버스토리
마케도니아

2019년 가을 제65권 3호



마케도니아에 새롭게 번역한
신약전서를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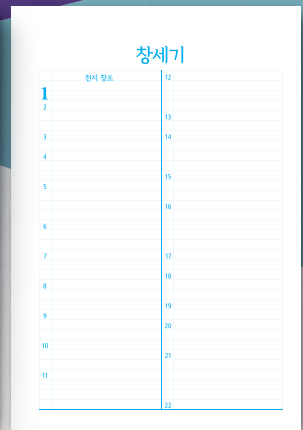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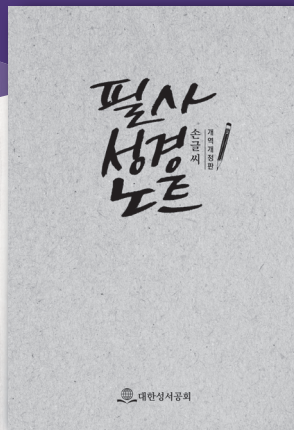


(재)대한성서공회

성경 필사는 기록한 예배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손/글/씨

필사성경 필사성경노트



손글씨 필사성경 (NKR83EBW)

- 손글씨 필사노트를 위한 성경
- 예배용 성경으로도 사용 가능
- 활자가 크고 행간이 넓어 말씀을 따라 쓰기에 적합
- 2019년 신조판 필사용 성경

손글씨 필사성경노트 (NKR83EBWN)

- 손글씨 필사성경을 참고하여 필사할 수 있는 노트
- 장·절 숫자, 소제목, 페이지번호가 청색으로 표기되어 필사하기에 쉽고 편리
- 특수 제본하여 잘 펼쳐짐
- 성경 및 노트 : 1,776면 / 크라운판(163*235)

2015년부터 신촌성결교회(성결), 경산중앙교회(합동), 부산대연교회(통합),
포항대도교회(감리) 외 10여 개 교회가 필사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 신촌성결교회
필사성경 영상보기



성서한국

2019 가을 제65권 3호

02 포토에세이

04 커버스토리

마케도니아에 새롭게 번역한
신약전서를 보내주세요!

08 2019 해외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72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성경을 받은 사람들

잠탕가어 신약전서는
우리와 천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에티오피아 아고부족 신약봉헌

12 말씀을 만나다

황새

14 현장이야기

가난과 핍박 속에서 피어난 믿음
-서아프리카 불어권 나라들 이야기

16 나의 삶을 바꾼 말씀

말씀을 깨치는 은혜 -문자교실 이야기

18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아시아 지역을 위한 기도

20 후원 이야기

귀한 나눔, 말씀으로 치유되는 에스와티니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2018 세계 성서 반포 현황

24 후원회원 초청 '성경 기증 예식'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본사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출판센터 (108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리로 344번길 110
반포센터/홍보진흥본부(모금, 홍보)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9년 8월 30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 이사야 58:8하



▲ 케냐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하는 므웬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한 폭력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란 므웬데는 성경을 통한
외상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예요.
전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며 저의 좋은 친구가 되셨어요.”

성경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준 것처럼,
이제는 성경을 통해 고아원 어린이들의
삶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선교지 마케도니아에 새번역 신약전서를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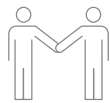
위치

남동유럽,
그리스 북쪽 내륙



인구

21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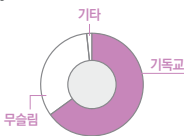
언어

마케도니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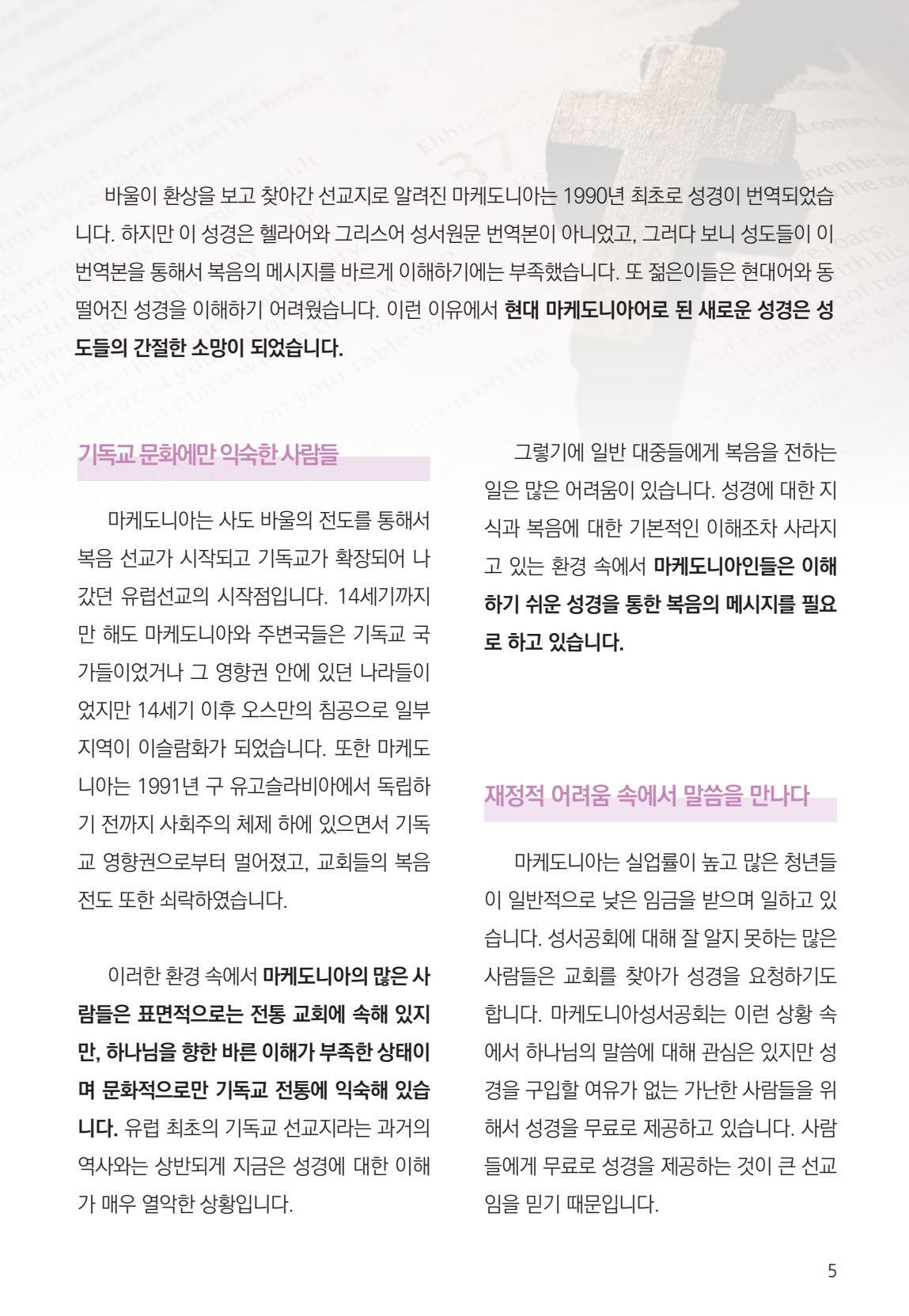


종교

기독교:65.2%,
무슬림:33.3%
기타:1.5%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마케도니아 여성



바울이 환상을 보고 찾아간 선교지로 알려진 마케도니아는 1990년 최초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헬라어와 그리스어 성서원문 번역본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이 번역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현대어와 동떨어진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대 마케도니아어로 된 새로운 성경은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만 익숙한 사람들

마케도니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선교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확장되어 나갔던 유럽선교의 시작점입니다. 14세기까지만 해도 마케도니아와 주변국들은 기독교 국가들이었거나 그 영향권 안에 있던 나라들이었지만 14세기 이후 오스만의 침공으로 일부 지역이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케도니아는 1991년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으면서 기독교 영향권으로부터 멀어졌고, 교회들의 복음 전도 또한 쇠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케도니아의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전통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며 문화적으로만 기독교 전통에 익숙해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기독교 선교지라는 과거의 역사와는 상반되게 지금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마케도니아인들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만나

마케도니아는 실업률이 높고 많은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성서공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가 성경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마케도니아성서공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성경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제공하는 것이 큰 선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 마케도니아 성서공회가 보급한 성경을 받은 학생들

또한 마케도니아성서공회는 마케도니아의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 표현으로 성경의 번역본을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를 인식하였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소망, 마케도니아 새번역 신약전서

2008년에는 성서학자와 학계 인사 그리고 언어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 토론하는 탐구회의를 가졌습니다. 현대어 마케도니아 성경 번역 계획은 교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고, 번역팀의

구성과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에는 성서 그리스어를 전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문 번역의 중요성을 알았던 마케도니아성서공회는 새 번역팀의 번역자들이 그리스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번역자들은 2013년에 성서 그리스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드디어 최초로 원문을 통한 신약전서 번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현대
마케도니아어로 번역된 새로운 성경이 절실합니다.”*

—마케도니아성서교회 총무



▲ 마케도니아 새번역 신약전서 번역팀

현재 2020년 완역을 앞두고 있는 마케도니아 새번역 신약전서 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케도니아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이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을 사용한 새 번역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오랜 기독교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음화가 필요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성서공회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새롭게 번역되는 마케도니아 신약전서의 제작과 반포에 어려움이 있어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서 원문에 기초하여야 정확한 성서 본문의 본 뜻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마케도니아의 뿌리내린 세속주의 속에서 성경적 복음 전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 새롭게 번역되는 마케도니아 신약전서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마케도니아성서공회에서는 5,000권의 새번역 신약전서를 출간하려고 합니다.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20명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후원으로 72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2019년 회원님들의 후원으로 38개국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구촌 이웃들이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붉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19.7. 31 기준)



유럽 중동 지역
16개국

그리스, 러시아, 레바논,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시리아,
아랍-이스라엘, 알바니아, 알제리,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지역
29개국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상투메, 세네갈,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중남미 지역 16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잠탕가어 신약전서는 우리와 천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 봉헌식에 참여한 아고 부족

에티오피아의 아고 부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신약전서를 받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암하라 지역에 거주하는 아고(Agaw) 부족은 약 30만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고 부족은 종교심이 매우 투철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잠탕가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암하라어나 기즈어로 된 성경을 사용해왔습니다.

잠탕가어 신약전서 번역은 약 10년 전 교회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가장 외진 지역 가운데 하나였지만 번역 프로젝트는 모국어로 번역된 성서를 갖길 원하는 공동체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성서공회가 무상으로 신약전서를 조판하여서 잠탕가어 번역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 잠탕가어 신약전서를 들고 기뻐하는 소년

2019년 4월 초, 정부 관료, 교회 지도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포함한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탕가어(Xamtanga) 신약전서 봉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번역자 중 한 명이었던 다윗 데시(Dawit Dessie)는 봉헌된 신약전서 본문을 큰 소리로 낭독하였고, 많은 이들이 노래와 시, 또 성가를 통해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수 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는데, 바로 오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방문하신 거죠.” 소코타 교구(Diocese of Sokota) 행정관인 히라위안 하일레(Hirawian Haile)는 기쁨을 표현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신약전서는 우리와 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성서공회 일마 게타훈(Yilma Getahun) 총무는 에티오피아성서공회가 지역 교회들과 함께 성도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여 교회들이 지상 대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한 소년은 신약전서를 받고 “저는 이 영원한 말씀으로부터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봉헌식에는 신약전서 천 권이 반포되었고, 현재 에티오피아 성서공회는 성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흰황새

황새(stork)

관련 구절

하시다(chasidah) 레 11:19; 신 14:18;
욥 39:13; 시 104:17; 렘 8:7; 속 5:9

이름에 대한 논의

히브리어 ‘하시다’(chasidah)가 황새라는 의견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황새로는 ‘흰황새’와 ‘검은황새’가 있다. 황새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주할 때 며칠 동안 이스라엘에 머무른다.

모양

위의 두 황새는 목과 다리가 긴, 큰 새이다. 황새는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로 이주한다. 이 두 황새들은 먹이를 찾아 지상이나 얇은 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흰황새는 주로 풀무치나 메뚜기나 다른 곤충들을 먹고, 개구리나 도마뱀, 땅에 둥지를 짓는 새 새끼들도 잡아먹는다. 검은황새는 물고기와 개구리를 더 좋아하지만, 흰황새가 먹는 것도 먹는다.

특별한 의미 또는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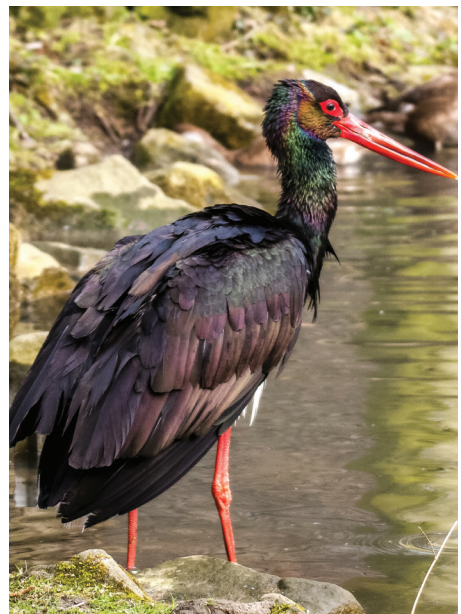
‘하시다’(chasidah)라는 이름은 ‘친절’ 또는 ‘신실’을 뜻하는 ‘헤세드’(chesed)로부터 파생되었을 것이다. 아마 둥지를 틀 때 어린 새끼들을 특별히 세심하게 돌본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번역

세계 도처의 여러 종의 황새 대부분은 이주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유럽에서 인도와 극동으로 이주하는 황새가 있는가 하면, 동남아시아에서 호주로 이주하는 황새도 있다. 황새의 존재를 모르는 일부 지역에서는 차용어나 음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스라엘을 지나 장거리로 이주하는 큰 새임을 알려주는 각주가 필요하다.

욥 39:13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해석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주석가는 ‘타조의 날개가 매우 빨리[기쁘게] 퍼덕거리지만 분명 황새의 날개에 비길 수 없다.’로 읽을 것을 권한다. 그러나 일부 주석가는 ‘하시다’(chasidah)를 (히브리어로는 매우 비슷한) ‘하세라’(chaserah)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는 ‘타조의 날개가 매우 빨리 퍼덕거리지만 날개깃이 없다.’가 된다.🌐

출처: Edward R. Hope, 『성서 속의 동물들』, 홍성혁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192-194;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UBS, 2005).



▲ 검은황새

가난과 핍박 속에서 피어난 믿음

- 서아프리카 불어권 나라들 이야기

전 세계 가장 가난한 30개 나라 중 11개 나라가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정치위기도 불어권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국가들은 1세기부터 교회가 존재했고 신흥 교회들도 확장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해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세력이 아프리카 북부를 통해 빠른 속도로 남하하며 이슬람화를 가속하고 있어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



최근 몇 년 사이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지역 교회 목사와 성도 세 명이 북부 마을에서 피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에도 목회자들



▲ 테러를 피해 이주해 온 피난민

이 납치되거나 고향이 예배에 난입해 성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테러 공격으로 인해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룬디



브룬디는 아프리카의 작은 내륙 국가입니다. 독일, 벨기에 식민지 통치를 거쳐 독립했지만 그 후로도 인종학살, 내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민족 갈등이 계속되어 현재도 정치 사회적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자료에 의하면 민족 간 갈등으로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간 부룬디 국민들은 38만



▲ 성경을 읽고 있는 브룬디 청년

명이 넘습니다. 계속된 부룬디의 정치 사회적 불안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삶의 터전과 교육의 기회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빈곤과 절망의 악순환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부룬디성서공회는 이 곳에서 참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이 땅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카메룬



카메룬은 이슬람의 공격적인 포교활동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접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된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크고 작은 공격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던 우리 형제 한 명이 보코하람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자 한 명은 보코하람의 공격을 피해 산에서 일주일간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록 그노아 카메룬성서공회 총무

카메룬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위협에도 카메룬성서공회는 성서보급 사역과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사역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십대 미혼모와 성적 착취를 당한 어린 소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에스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그램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에이즈의 신규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깨치는 은혜

- 문자교실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충족되었습니다.”

- 호아키나 베가

호아키나 베가(Joaquina Vega)는 남아메리카의 토착 민족 위치 부족(Wichí)을 대상으로 한 문자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100년 전 위치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이제는 위치 사람들의 삶 중심에 복음과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 호아키나는 1학년 학급에서 교사가 스페인어로 말하는 내용을 위치어로 통역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언어인 위치어를 읽지는 못하지만 위치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문자교실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는 소식을 들은 호아키나는 재빨리 등록하였습니다. “문자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 성경을 읽고 있는 호아키나 베가(아르헨티나)

어른이 되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호아키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호아키나는 성경을 간절히 읽고 싶었던 열망을 되새겼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 길 여러 날 기도를 하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 지도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성서공회가 실시하는 이 문자교실 프로그램은 위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오늘날 호아키나는 위치어를 알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큰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 문자교실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그바티 푸세니(토고)

토고의 권(Guin) 그리고 바싸(Bassar) 부족 사람들은 2015년 모국어로 된 성경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자신들의 언어인 미나어(Mina)와 은참어(N'tcham)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언어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고성서공회는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 이 언어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미나어와 은참어로 성경을 읽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바티 푸세니는 여기에 참여한 많은 이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목수인 그바티 푸세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항상 글을 읽고 쓰려는 열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바티는 토고성서공회에서 실시하는 오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글 읽는 사람을 흥내내며 잘 읽을 수 있게 된 부분들을 성경에서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문자교실이 시작되자 그바티는 곧바로 등록하였습니다. 많은 여성들 가운데 자신만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그바티는 끈기 있게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는 이제 더 잘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아이들이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 달아나곤 하였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다시 존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분이시며,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을 더욱 더 잘 알아가게 된다’라는 깨달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그바티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변화였습니다.🌐

**“글을 깨치는 일이 성경 속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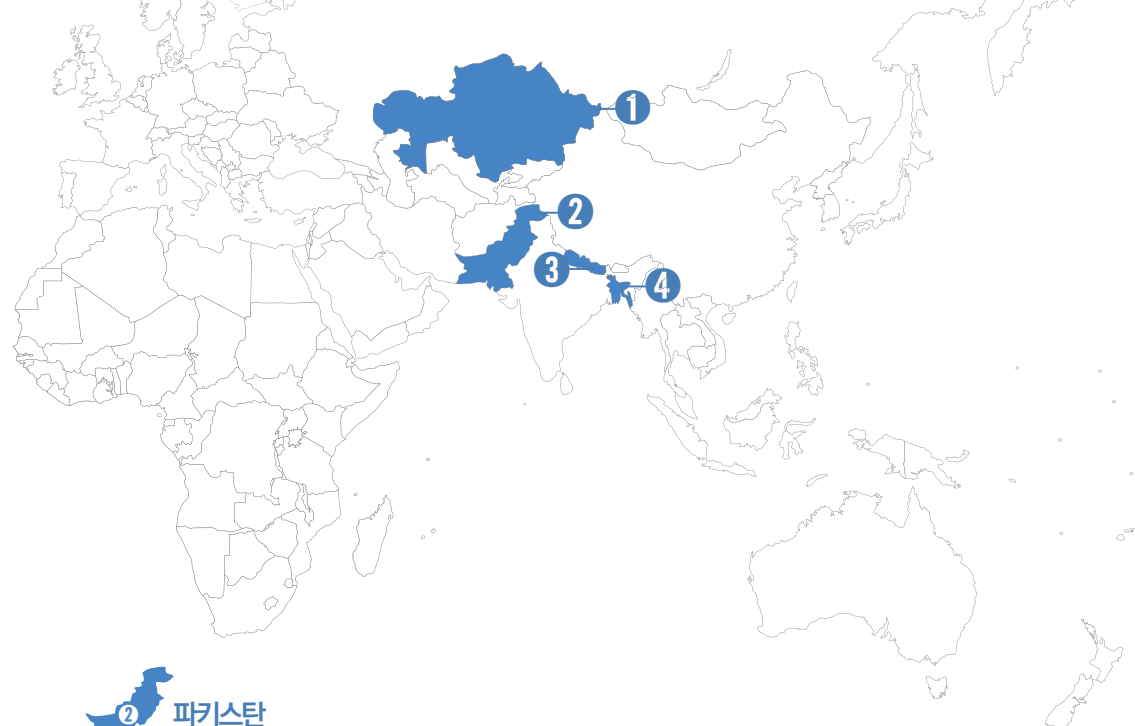
- 그바티 푸세니

아시아 지역을 위한 기도



①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성서공회는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여건 속에서 카자흐스탄성서공회가 수행하는 사역을 위해, 또한 카자흐스탄 성서공회 프로젝트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②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로 이 지역에서의 성서사업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나눌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성서번역과 보급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③ 네팔

네팔어 성경과 성경 관련 자료들의 성공적인 번역, 제작과 반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서 말씀을 삶 가운데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성서공회가 총력을 기울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기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④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소수민족들이 성경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난민으로 지내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로힝야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로힝야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이들이 많은 난관을 이겨낼 수 있길 간구합니다. 🌐

귀한 나눔, 말씀으로 치유되는 에스와티니



▲ 에스와티니 학생들과 새롭게 건축된 어린이 선교센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8)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는 우리에게 생소한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50만이 안되지만 한 때 국민의 40% 이상이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보균자였습니다. 세계 각지로부터의 지원으로 상황이 나아졌어도 발병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이 나라 어린이들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로 인해 고아가 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병든 부모를 간호하다 결국에는 그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어 정신적 외상을 크게 입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트라우마를 마음에 간직한 채 학업을 지속하게 되면서 불행히도 학교 생활 및 학업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공회는 성경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대부분 고아인 아이들이 함께 모여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 에스와티니성서교회 음불리 총무

에스와티니 어린이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과 에스와티니성서공회의 노력을 접한 후원회원의 헌신적인 사랑과 나눔을 통해 이제 에스와티니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경 저희 교회에 대한성서공회 모금사업부 문서선교사 장로님께서 오셔서 성경이 없어 고통받는 이웃 나라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후원하는 Bible a Month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셨어요. 해외 선교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온 터라 성경을 보내기 위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정선주 집사

이렇게 정선주 집사는 에스와티니와 인연을 맺게 되고 2015년에 20,200부의 스와티어 성경이 에스와티니에 보급될 수 있도록 후원하였습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성서공회는 어린이들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마다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상담실과 프로그램 활동 공간이 갖춰진 어린이 선교센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에스와티니성서공회 음불리 총무



▲ 어린이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정선주 집사(가운데)»

에스와티니의 교회와 어린이를 마음에 품은 정선주 집사는 이 나라에서의 성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경 후원을 지속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후원을 통한 정선주 집사의 지속적 후원은 어린이 선교센터 건축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린이 선교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고, 어린이 선교센터를 봉헌하는 뜻깊은 자리에 정집사와 가족들은 에스와티니성서공회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며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 성도의 귀한 나눔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에스와티니의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꽃피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2018년에 성서공회들은 3천 8백 5십만 부의 성경전서를 포함해
총 3억 5천 4백만 부의 성서를 반포했다.

북미

성경전서
3.4백만 부
총 성서 반포 부수
4.5백만 부

중남미

성경전서
14.9백만 부
총 성서 반포 부수
273백만 부

유럽

성경전서
2.9백만 부
총 성서 반포 부수
5.9백만 부

아프리카

성경전서
7백만 부
총 성서 반포 부수
9.8백만 부

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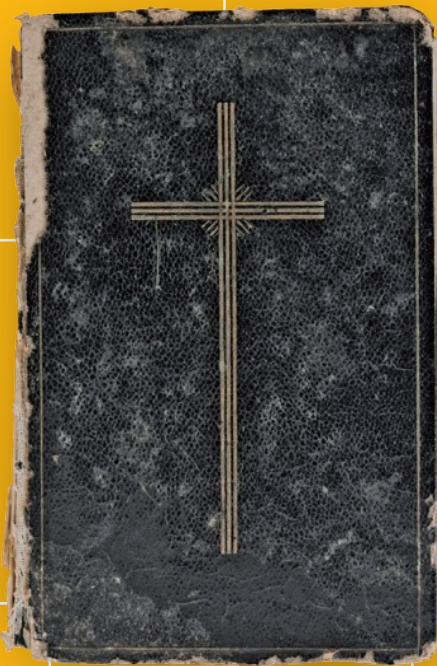
성경전서
0.3백만 부
총 성서 반포 부수
2백만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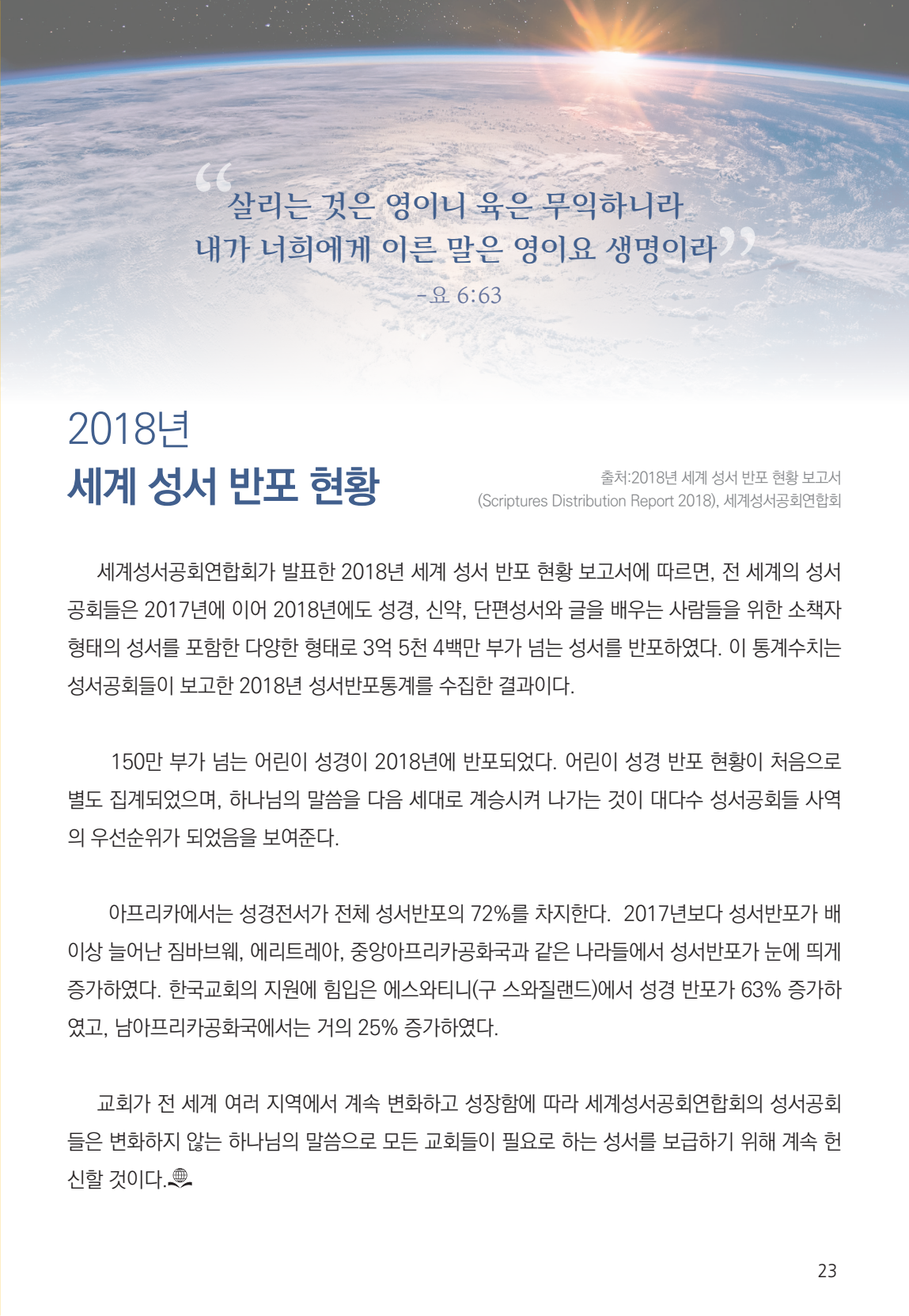
아시아

성경전서
9.4백만 부
총 성서 반포 부수
58.6백만 부

오세아니아

성경전서
0.6백만 부
총 성서 반포 부수
0.7백만 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3

2018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출처: 2018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
(Scriptures Distribution Report 2018),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성서 공회들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성경, 신약, 단편성서와 글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소책자 형태의 성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3억 5천 4백만 부가 넘는 성서를 반포하였다. 이 통계수치는 성서공회들이 보고한 2018년 성서반포통계를 수집한 결과이다.

150만 부가 넘는 어린이 성경이 2018년에 반포되었다. 어린이 성경 반포 현황이 처음으로 별도 집계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 대다수 성서공회들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에서는 성경전서가 전체 성서반포의 72%를 차지한다. 2017년보다 성서반포가 배 이상 늘어난 짐바브웨,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성서반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한국교회의 지원에 힘입은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에서 성경 반포가 63% 증가하였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거의 25% 증가하였다.

교회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함에 따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공회들은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성서를 보급하기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다. 🌐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위해 동참해 주신 후원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성서 기증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후원 회원님,
올 상반기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전 세계 28개국에 132,173부의 성경을 기증할 수 있었
습니다. 귀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성경을 보내는 이 귀한 사역에 협력해주신 후원회원님들을 초청
하여 성경 기증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 기증 예식 일정

일 시: 2019년 9월 24일 (화)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일정 중에 부분적 참여도 가능합니다.)

장 소: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대 상: 후원 회원(가족 등)

일 정: (1) 성경 기증 예배

(2) 기증 성경 상차식

(3)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 견학(성서학 도서관, 성서 보관 창고)

(4) 대한성서공회 제본시설 '바이블코리아' 견학

신청 방법

문 의: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02-2103-8861~3)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팩스



(02-2103-8896)로
전송해 주세요.

우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으로 발송해 주세요.

02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신한은행 140-009-909678

농협은행 355-0025-0990-53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수협은행 033-01-085327

우 체 국 011916-01-000076

후원문의

Tel. 080-374-3061(수신자 부담)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재)대한성서공회

신청인 _____ (서명)

교회명 _____ 직분 _____

휴대전화 _____

집 전화 _____

주소 _____

☐ 우편물거부 ☐ 소식지 이메일 신청

이메일 _____

☐ 매월 1만원 (성경 2권) ☐ 매월 5만원 (성경 10권)

☐ 매월 2만원 (성경 4권) ☐ 매월 10만원 (성경 20권)

☐ 매월 _____ 원 (성경 _____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효성예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체일 ☐ 5일 ☐ 15일 ☐ 25일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은행명 _____ (휴대전화번호로 된 계좌 또는 카카오�뱅크 계좌 등록X)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휴대전화 _____

예금주 생년월일(주민등록증 상) _____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_____ (서명)

년 월 일

